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전문가들, 미국 경제 전망치 상향에 침체 가능성을 낮춰
- WSJ: 파월 의장, 금리 인상 중단 계속 시사
- WSJ: 9월 주택 판매 건수 13년 만에 최저... 고금리 압박 탓

[금융]

- CNN Business: 미 모기지 금리 8% 근접
- WSJ: 이번 주식 상승 시장은 이상하게 느껴진다
- CNBC: 미 은행들, 앞으로도 직원 수 줄인다
- JP모건: 글로벌 투자 환경... 안정성을 선호한다

[뉴욕시]

- Bloomberg: 뉴욕시 Airbnb 신청 건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아

[기후]

- WSJ: 미 북부지역, 올해 겨울 평균보다 따뜻할 듯
- WSJ: EIA, 올해 가정 평균 난방비 8% 증가 예상

[인공지능]

- WSJ: 가까운 미래, AI가 변화할 3가지 모습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한국,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방안 모색 중
- CNN Business: 육류업체 타이슨, 곤충 단백질에 투자하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Economists Boost US Growth Projections, Reduce Recession Odds

전문가들, 미국 경제 전망치 상향에 침체 가능성을 낮춰

-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 지출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 초까지 미 성장 전망치를 올렸으며 침체 가능성은 1년만에 최저치로 줄었다.
- 전문가들이 미 가계 지출 전망치를 올림에 따라 미 경제는 3분기에 연간 3.5% 상승해 2년내 가장 빠른 속도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.
- 이후에 2개 분기에 걸쳐 성장세는 하락하겠지만 최근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GDP 성장을 추정치를 상향조정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Jerome Powell Signals Fed Will Extend Interest-Rate Pause

파월 의장, 금리 인상 중단 계속 시사

- 연준 파월 의장은 어제 목요일에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국채 수익률의 상승 때문에 연준이 역사적으로 계속된 금리 인상 조치들을 중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.
- 이같은 발언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양일간 연준의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최근 동결을 시사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.
- 그는 또한 “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”며 현재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 조건이 더 긴축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WSJ: Home Sales Slide to Lowest Pace Since 2010 as High Rates Squeeze Market

9월 주택 판매 건수 13년 만에 최저... 고금리 압박 탓

- 9월 주택 판매 건수가 13년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.
- 고금리로 기존 주택 수요에 부담을 주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지난 2011년 이래 최저치였다, 또한 고금리로 주택 매물이 줄었는데 이유는 낮은 모기지율로 구입했던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딴 곳으로 이사가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. 적은 공급도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.
-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도 9월들어 전월에 비해 2% 감소해서 계절 조정치로 연간 3백96만채를 기록했다. 이는 지난 2010년 10월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국부동산협회는 밝혔다. 9월 판매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15.4% 줄었다.

WSJ 기사

[금융]

CNN Business: Mortgage rates advance toward 8%

미 모기지 금리 8% 근접

- 예상외의 강한 경제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가운데 모기지 비율이 지난주에 계속 올랐다.
- 10월 19일주 끝난 주에 30년 모기지율이 7.63%로 전주인 7.57%보다 높았다고 Freddie Mac는 어제 목요일 밝혔다.
- 1년전에는 모기지율이 6.94%였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“모기지율이 이번주에 8%로 향하면서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여파를 주고 있다”고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WSJ: There's a Reason This Bull Market Feels So Weird 이번 주식 상승 시장은 이상하게 느껴진다

- 요지: 작년의 주식 시장 랠리는 시작이기 보다는 상승장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인다.
- 요사이 S&P 500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식이 하락했다. 은행 실적이나 빠르고,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했고, 실적 기대치도 떨어졌다. 사실 이는 정상이 아니다.
- 이번에 있었던 상승장의 특징 중 하나는 대형주 상승에 집중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상승장의 시작이 아닌 마지막에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.
- 즉, 최근의 강세장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라면, 이는 작년에 시작되었던 약세장 속에서의 매우 강한 반등일 뿐인 가능성이 있다.

WSJ 기사

CNBC: Big banks are quietly cutting thousands of employees, and more layoffs are coming 미 은행들, 앞으로도 직원 수 줄인다

-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, JP 모건 체이스를 제외한 미국의 은행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발표했다.
-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, 미국의 5대 은행들은 올해 지금까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줄였다.
- 은행업계 인력 감축은 올해 초에 금융업계 이직률이 급격하게 감소해, 은행이 예상보다 많은 직원을 보유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.

CNBC 기사

JP 모건: Top 10 Takeaways: 2023 IMF/World Bank Meetings in Marrakech: Investors prefer to play it safe despite unexpected resilience 글로벌 투자 환경... 안정성을 선호한다

- 중기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의 절뚝거리는 모습 ("limping along")으로 묘사된다. 이번 컨퍼런스에 응답자의 54%가 미국 연착륙을 예상했지만 2024년까지 인플레이가 목표치까지 회복되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.

-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이머지 마켓의 회복력은 유럽과 중국의 약세와 대조된다.
- 단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스크의 구조적인 가격 재조정은 계속되고 있다.
- 미국의 경우 국채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규모 적자 시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.
- 다수의 신흥 국가 중앙은행들은 매파적이거나 보다 신중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더 제한적일 수 있다.
- 지리적/경제적 균열의 여파로 탈세계화, 탈동조화, 탈달러화에 대한 두려움이 바뀌고 있다. 그리고 WTO 에 따르면 무역 분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의 최대 5%가 손실될 수 있으며, 신흥 시장의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.
- 미국 선거는 내년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.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부파 양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(54%)가 많았지만 카말라 해리스의 잠재적인 역할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.
- 미국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는 체계적이지 않으며, 은행 감독을 개선하는 것이 자본 요건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.
- 라틴 아메리카는 투자 환경과 관련해 이머징 마켓중에서 선화하는 지역이며 터키는 더 긍정적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.

JP 모건 기사

[뉴욕시]

Bloomberg: Most New York Airbnb Applications Don't Meet City Requirements

뉴욕시 Airbnb 신청 건 대부분 요건에 맞지 않아

- 뉴욕시는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 호스트가 숙소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.
- 지난달 부터 30일 미만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들은 면허 신청을 뉴욕시에 내야 하는 법이 시행됐다.
- 그런데 10월 9일 현재 신청건 4천7백94건중에 1천6백97건을 검토했는데 이 가운데 57%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됐다.

Bloomberg 기사

[기후]

WSJ: Warm Winter Predicted for Northern U.S.

미 북부지역, 올해 겨울 평균보다 따뜻할 듯

- 올해 북미에 평균보다 더 따뜻한 겨울이 예상된다.
- 국립해양대기청은 어제 목요일, 따뜻한 기온이 캘리포니아 일부에 걸쳐 미 북부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. 알래스카, 태평양 북서부 및 뉴 잉글랜드 북부가 계절에 맞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고 일기 예보관은 말했다.
- 미국의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평년과 유사한 기온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- 습한 기후를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 이번 따뜻한 겨울에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WSJ: Heating Your Home Should Cost Less This Winter—Unless You Live in These States

EIA, 올해 가정 평균 난방비 8% 증가 예상

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, 코네티컷의 약 4천 가구가 작년 가을에 따뜻한 겨울을 위해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는 Operation Fuel 기관에 의존했다.
- 이 비영리기관은 올해 작년과 유사한 숫자의 가구를 지원했지만, 지원 신청을 조기에 마감했다.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에 몰린 것이다.
- 기부자 지원 단체 대변인인 Roxanna Booth는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고 말했다.
- EIA(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)에 따르면 올겨울 디젤과 같은 연료에 대한 가정 평균 지출이 8% 증가해 대략 1850불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.

WSJ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3 Ways Tomorrow's AI Will Differ From Today's Chatbot

가까운 미래, AI가 변화할 3가지 모습

- WSJ Tech Live에서 CTO를 맡고 있는 Mira Murati는 Open AI의 목표 중 하나는 AGI(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)를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. 그는 AGI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작업과 동등한 업무를 해내는 인공지능이라면서, 이것이 앞으로 많은 생산성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. 그는 또한, 앞으로 인간은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며,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.

- Murati는 사람들이 로봇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이 있다고 답했다. 그는 의도적으로 OpenAI의 명칭이 사람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봇 ChatGPT라고 지어진 것을 언급하면서,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다.
- AI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됨에 따라, 앞으로의 질문은 AI가 노동시장에 붕괴를 일으킬 것인지가 아니라 붕괴 속도가 될 것이다. Open AI 최고 경영자 Sam Altman은 AI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며, 과거의 산업 또는 디지털 혁명보다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Korea to Seek Alternative Graphite Source if Shortage Hits 한국,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방안 모색 중

-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강화에 대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.
-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, 일부 흑연 관련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.
- 중국에서 흑연은 12월 1일부터 이른바 “이중 용도 항목(dual-use item)”으로 지정돼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.
- 이런 중국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성능 반도체 기술 통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 나왔다.
- 흑연은 충전식 전지 내부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. 중국은 세계 흑연 생산량의 60%를 차지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Tyson, one of the biggest meat producers, is investing in insect protein 육류업체 타이슨, 곤충 단백질에 투자하다

- 미국에서 주요 육류 생산 업체인 타이슨이 곤충 단백질에 투자하고 있다.
- 어제 목요일 기업 관계자는 타이슨이 네덜란드 소재의 곤충 식재료 기업인 Protix에 투자했다고 말했다.
- 타이슨은 이 기업에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으며, 양 기업 간의 구체적인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.

- 곤충 단백질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식량자원을 인정받았지만, 사람들 사이에서 주류 식품이 되진 못했다. 그러나 최근엔 동물들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'중대 기점' 5% 넘는 美 국채 금리...고공행진 이유는

美경제 호조·재정적자 확대가 상승 요인..."상승 행진에 증시 겁먹어" 다이먼 "7% 금리 대비해야" vs 골드만삭스 "4.2%가 적정

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9일(이하 현지시간) '중대 기점'으로 여겨지는 5%를 찍으면서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.

국채 금리는 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의 연설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 미 경제가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상승 반전했다.

전망은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상승세가 꺾여 4% 초반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엇갈리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unsubscrib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